

세계인의 축제, 부산국제영화제

올해로 18회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는 10.3일(목)~12일(토)까지 해운대, 남포동 소재의 7개 극장에서 열흘간 개최된다. 개막작인 부탄 영화 “바라:축복”을 시작으로 70개국에서 출품된 301편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는 30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400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부산발전연구원 발표, 2010년)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이 칸, 베니스 등 세계적인 영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세계 3대 영화제

영화제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기준으로 순위 평가는 어렵다. 참관객수, 참가작품수, 작품수준, 전통, 명성 등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칸 국제영화제(프랑스), 베니스 국제영화제(이탈리아), 베를린 국제영화제(독일)는 이견 없는 세계 3대 영화제로 평가받고 있다.

베니스(Venice) 국제영화제는 ‘물의 도시’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1932년부터 시작되었다. 세계 최초의 국제영화제로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예술영화를 지향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탈리아 정치가인 주세페 볼피(Giuseppe Volpi)경이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부의 정치선전용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938년까지는 비경쟁 영화제였으나 이후 경쟁 영화제로 변모하였다.

칸(Cannes) 국제영화제는 휴양도시인 프랑스 남부 칸에서 1946년부터 시작되었다.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프랑스 국립영화센터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부의 개입으로 정치색을 강화했던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대응하기 위해 1939년 개최준비를 끝냈으나 전쟁으로 연기되었다가 1946년에 시작된 것이다.

베를린(Berlin) 국제영화제는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195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서독 영화산업의 발전과 함께 당시 분단 상태에 있는 독일의 통일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영화제이다.

2012년에는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Pieta)’가 한국영화 최초로 세계 3대 국제영화제의 최고상 중 하나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

부산국제영화제는 앞서 언급한 3대 영화제, 토론토 국제영화제(캐나다)와 함께 세계 5대 영화제로 평가받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국제영화제(1977년 개최)와 도쿄국제영화제(1985년 개최)를 넘어 서서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발돋움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는 1990년대 침체기에 빠져있던 한국 영화산업 부흥을 위해서 시작되었다. 1996년에는 한국영화의 관람객수(서울기준)는 450만명, 관객점유율은 20%로서 올해 8월의 2,150만명과 55.6%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최장소로 부산이 선택된 이유는 한국 최초의 영화제작사(조선키네마 주식회사, 1924년 설립)가 입지했던 한국영화의 발상지라는 상징성 외에 영상문화의 중앙집중에서 벗어나 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요인으로 집행위원장 역량, 조직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부산시와 정부의 합리적 지원, 프로그래머 구성의 적절성, 지역시민의 적극적 참여 등이 꼽힌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 받는 것은 전략적인 정체성 선택이다. 3대 영화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세계적인 영화제는 일부 비경쟁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경쟁영화제이다. 경쟁영화제는 영화의 우열을 가려 시상을 하는 영화제를 말한다.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 베니스 영화제의 황금사자상 등의 시상으로 대표된다. 부산국제영화제는 후발영화제로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순수 영화제를 표방하며 비경쟁영화제로 출발하였다. 시작 시기에는 이 때문에 흥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아시아영화제 발굴 및 투자자와 배급자를 연결해 주는 생산적 영화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성공적인 영화제로 도약했다.

■ 부산국제영화제와 세계 3대영화제 현황 ■

구 분	부산국제영화제	베니스국제영화제	칸국제영화제	베를린국제영화제
최초 개최	1996년	1932년	1946년	1951년
개최일정	10월중	8월중	5월중	2월중
영화제 성격	비경쟁	경쟁	경쟁	경쟁
최고상	-	황금사자상	황금종려상	황금곰상
개최도시	한국 부산	이탈리아 베니스	프랑스 칸	독일 베를린
(인구)	357만명	28만명	7만명	344만명
(면적)	766km ²	414km ²	20km ²	892km ²
(외국인 관광객)	260만명	300만명	-	410만명

부산의 10월 축제

부산의 10월은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예정되어 있어 볼거리가 풍성하다. 우선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3일~12일) 개최된다. 그리고 풍성하고 신선한 해산물 먹거리와 다양한 살거리, 다채로운 볼거리가 있는 자갈치축제(9일~13일)가 있을 예정이다. 그 외 송도해수욕장에서는 부산바다미술제(9월 14일~10월 13일)가 진행 중에 있고, 광안리에서는 부산불꽃축제(25일)가 열린다.

● ● ●

이 기회에 스스로가 부산의 홍보대사라고 생각하고 타 지역에 있는 지인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또 초청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채권금리 상승세

→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17~18일) 이후 채권금리가 급락했으나 동양증권 관련 매물이 쏟아지며 채권금리 소폭 상승

▶ 미국 다우지수 하락세

→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증액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원화 및 엔화 강세

→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유지 결정으로 원화 및 엔화 강세 시현

● 금리

	2012년말	2013. 7월말	2013. 8월말	9/20	9/23	9/24	9/25
기준금리	2.75	2.50	2.50	2.50	2.50	2.50	2.50
CD(91일)	2.89	2.66	2.66	2.66	2.66	2.66	2.66
통화안정증권(1년)	2.78	2.69	2.66	2.65	2.64	2.65	2.67
국고채(3년)	2.82	2.92	2.88	2.85	2.80	2.82	2.84
회사채(3년, AA-)	3.29	3.36	3.25	3.25	3.21	3.23	3.25
회사채(3년, BBB-)	8.80	9.01	8.96	8.96	8.92	8.95	8.97

● 주가

	2012년말	2013. 7월말	2013. 8월말	9/20	9/23	9/24	9/25
KOSPI	1,997.1	1,914.0	1,926.4	2,005.6	2,009.4	2,007.1	1,998.1
美다우	13,104.1	15,499.5	14,810.3	15,451.1	15,401.4	15,334.6	15,273.3
니케이225	10,395.2	13,668.3	13,388.9	14,311.7	-	14,732.6	14,620.5
상하이종합	2,269.1	1,993.8	2,098.4	2,191.9	2,221.0	2,207.5	2,198.5

● 환율

	2012년말	2013. 7월말	2013. 8월말	9/20	9/23	9/24	9/25
원/달러	1,071.1	1,113.6	1,109.0	1,083.5	1,075.0	1,074.0	1,077.0
원/100엔	1,247.5	1,135.4	1,129.2	1,092.2	1,086.6	1,084.1	1,093.4
원/유로	1,416.3	1,476.7	1,470.6	1,447.01	1,452.7	1,449.8	1,450.8
원/위안	171.9	181.6	181.5	177.03	175.7	175.6	175.9
엔/달러	85.86	98.08	98.38	99.59	98.80	98.64	98.74